

[NBA]클리블랜드, 제임스·러브 '42점 합작'에도 덴버에 덜미

등록 2014.11.18 15:41:09 | 수정 2016.12.28 13:41:20



【클리블랜드=AP/뉴시스】미국프로농구(NBA)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가 18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퀵큰 론즈 아레나에서 열린 2014~2015 NBA 덴버 너게츠와의 경기에서 97-106으로 졌다. 경기 중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르브론 제임스(클리블랜드·왼쪽)의 모습.2014.11.18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미국프로농구(NBA)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가 약체 덴버 너게츠에 덜미를 잡히며 연승 행진을 마감했다.

클리블랜드는 18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퀵큰 론즈 아레나에서 열린 2014~2015 NBA 덴버와의 경기에서 97-106으로 졌다.

이날 경기 전까지 4연승을 기록 중이었던 클리블랜드(5승4패)는 안방에서 고배를 들며 상승세가 꺾였다. 가까스로 동부콘퍼런스 4위를 유지했다.

르브론 제임스(22점 9리바운드)와 케빈 러브(20점 11리바운드)는 42점을 합작하며 제 몫을 다했지만 팀 패배에 고개를 숙였다. 카일리 어빙과 디온 웨이터스도 나란히 20점씩을 책임지며 분전했다.

덴버는 클리블랜드를 제물 삼아 시즌 3승째(7패)를 따내며 서부콘퍼런스 중위권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현재 12위다.

타이 로슨은 24점 12어시스트로 공격을 주도했고 아론 애플라로도 3점슛 4개를 포함해 23점을 올리며 맹활약했다.

전반전을 53-52로 마친 덴버는 3쿼터부터 점수차를 벌리기 시작했다. 강한 압박으로 클리블랜드의 턴오버를 유도했고 윌슨 찬들러와 애플라로의 연속 3점포를 앞세워 상대의 기를 꺾었다.

4쿼터 초반 네이트 로빈슨과 애플라로가 각각 2개의 3점슛을 성공시키며 사실상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16점 차까지 앞서나

간 덴버는 여유있는 경기 운영으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는 뉴올리언즈 펠리컨스와의 경기에서 무서운 뒷심을 발휘하며 102-93으로 이겼다.

경기 종료 10분 여를 남겨놓고 15점 차까지 뒤져있던 포틀랜드는 4쿼터에만 34점을 쏟아 붓으며 대역전극을 일궈냈다.

5연승을 달린 포틀랜드(8승3패)는 서부콘퍼런스 4위로 뛰어올랐다. 데미안 릴라드가 24점 7어시스트로 승리를 이끌었다.

다잡은 승리를 놓친 뉴올리언즈(5승4패)는 서부콘퍼런스 9위로 떨어졌다. 앤서니 데이비스는 31점 11리바운드를 기록하며 패배 속에서 빛났다.

◇NBA 18일 전적

▲클리블랜드 97-106 덴버

▲샬럿 80-107 댈러스

▲보스턴 114-118 피닉스

▲디트로이트 93-107 올랜도

▲브루클린 83-95 마이애미

▲메μφ리스 119-93 휴스턴

▲샌안토니오 100-75 필라델피아

▲포틀랜드 트레일 102-93 뉴올리언즈

▲LA클리퍼스 89-105 시카고

lkh2011@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